

##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의사의 전문직 역할도덕과 ‘초연한 관심’\*

강명신\*\*

###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의사 역할을 한 마디로 표현한 사례로서, ‘초연한 관심’을,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역할도덕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제도 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사는 임상에서 환자와 만나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도덕과 역할도덕을 대립시켜보는 논의들을 검토하고 역할의 개념을 사회윤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역할의 몰인격적 부분이 구체화된 것이 역할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을 도입하는 과정에, 사회윤리의 역할 분석을 상술할 것이다. 역할도덕의 가장 구조화된 형태가 바로 전문직 윤리규정이 된다는 사회윤리학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환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배우는가? ‘초연한 관심(detached concern)’은 콜롬비아 의대생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이 배우는 의사역할을 규정했던

말이다.<sup>1)</sup> ‘초연하기’와 ‘관심’이 의사역할과 어떤 식으로 관계되는가? 뒤에 상술하겠지만, 의사의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의 양쪽에, 몰인격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때, 초연하기와 관심은, 역할의 몰인격적 부분, 즉 역할도덕의 규범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그에 앞서 전문직 역할도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 II. 전문직의 역할도덕과 관련된 연구

전문직의 역할도덕이 의료윤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일반도덕과의 관계이다. Luban(2003)<sup>2)</sup>은 전문직 윤리에서 제기되는 철학문제의 중심에 공통도

\* 이 글은 2007년 5월 4일 한국의철학회 봄철 학술대회 발표문이다. 발표기회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부족할 윤리학도에게 유익한 가르침이 된 논평을 해 주신 데 대해, 한림대학교의 윤리학자 주동률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BK21 치의과학사업단. 02-2228-3018. mskang68@yuhs.ac

1) Emmet D. Rules, Roles, and Relations. Boston : Beacon Press, 1965 : 160. ‘초연(超然)한(detached)’은 ‘집착/애착을 갖는(attached)’과 대칭되는 말이다. 본뜻은 공간적인 메타포를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거리를 두는’이라는 뜻이다. 각주 2)참고.

2) Luban D. Professional ethics. A Companion to Applied Ethics : Blackwell Companions to Philosophy, Frey RG ed. Malden MA : Blackwell Publishing, 2003.

덕(common morality)과 전문직 역할도덕(professional role morality) 사이의 제거할 수 없는 긴장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두' 도덕 사이의 갈등을, Wueste(1994)<sup>3)</sup>는 제도적 도덕(institutional morality)과 비제도적 도덕(non-institutional morality)의 관계로 본다. 그런가하면, Bowie(1982)<sup>4)</sup>는 두 도덕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역할갈등이야말로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의 윤리쟁점을 제대로 다루려면, 바로 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직 역할과 관련한 철학적 문제의 핵심이, 역할도덕과 공동도덕의 문제이거나, 혹은 제도적 도덕과 비제도적 도덕의 문제이든간에,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나 도덕비평가의 입장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Wueste는 역할도덕을 진지하게 수용하려고 결단하는 것은 일종의 역할을 향한 헌신을 산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가장 두드러진 헌신의 방식은, 자신이 정당화하여야 하는 행위가 일반 공동도덕으로 비난받을 경우에 역할도덕의 규범들을 활용해서 정당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Gibson(2003)<sup>5)</sup>은 역할도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역할도덕이라는 개념은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도덕을 채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는 역할도덕의 멘탈리티(mentality)라고 부른다. 역할도덕의 멘탈리티는 역할 수행 도중의 행위에 대해, 역할도덕에만 의존해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을 행위자에게 심어준다. 기술적(descriptive)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역할도덕이 이런 멘

탈리티를 심어주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이를 가지고 면책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가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위자가 역할도덕으로 정당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결국에 가서는 공동도덕의 잣대를 적용해서 도덕적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실제로, 행위자들은 스스로 최선의 도덕적 판단이라고 믿는 것과 전문직 도덕이 말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결국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보편적 규범 사이에서 지혜롭게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sup>6)</sup>

이 글에서 제시하는 의사-환자 관계 속에서 의사의 태도규범으로서의 초연한 관심은 구체적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도출한 추상적 규범이다.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도덕적 상황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자신의 행위를 역할개념을 활용해서 행위자체를 다시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고 Applbaum(1999)은 주장한다. 말하자면, 역할도덕은 공동도덕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erhane(1998)<sup>7)</sup>은 역할도덕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역할관계들만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격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을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Applbaum은 칸트주의자로서 제도의 도덕적 평가에 결과주의 논변을 활용한 정당화가능성은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자가 역할수행자로서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가운데 공동도덕의 한계를 비껴가야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의 결과주

3) Wueste DE. Role moralities and the problem of conflicting obligations. *Professional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Lanham : Rowman & Littlefield, 1994.

4) Bowie NE. 'Role' as a moral concept in health care. *J Med Philos* 1982 ; 7 : 57-64.

5) Gibson K. Contrasting role morality and professional morality: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003 ; 20(1) : 17-29

6) 이 글의 목적은 두 도덕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지는, 의사는 바로 이 두 도덕 사이에 위치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할도덕은 직업적 책임이고, 이것만으로는 행위의 정당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역할 개념의 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7) Werhane PH. Self-interests, roles and some limits to role morality. *Public Affairs Quarterly* ; 12(2) : 221-241.

의를 비판하고 있다. 역할과 관련해서, 그의 논의의 핵심은, 자기와 역할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 판단이 역할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8)</sup> Welch(1993)<sup>9)</sup>는 공통도덕으로부터 어떻게든 구별되는 독특한 것으로서, 특유의 역할에 적용되는 고유한 역할도덕을 가지고, 전문직 윤리규범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을 기술하면서 이를 여지없이 비판하고, 공통도덕과의 연속성을 대두시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규범적 의미의 전문직 개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글래스고우 대학교의 Downie 교수는 지향점이 다르다. 그는 굳이 역할도덕이 공통도덕과 연속적이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직업적 책무(duty)로서의 역할도덕을 규정한 다음, 전문직 윤리규정은 역할의 몰인격적 부분인 역할도덕의 구체화 사례로 이해한다.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전문직 규범 이외에 공통도덕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순서를 밟는다.

그의 논의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직업적 특이성을 인정한다. 역할이란 관계이고 직업상 고객의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직업인의 기술에 의해 직업적 의무는 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10)</sup> 둘째,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는 우선 역할도덕이 규정하는 것을 직업내의 표준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역할수행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게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도덕이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셋째, 의사로서 직업적 의무만 다했다고 해서 도덕적 정당화가

끝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업상 역할을 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11)</sup> 그는 197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사회윤리학자의 의료와 의학 교육과 의사윤리에 대해 일관된 논의를 펼쳐오고 있다. 그의 메시지 중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주장을 의사의 역할도덕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필자는 개념체계의 분석을 Downie(1971)에게 절대적으로 힘입었다. 사실, 다운니 본인은 역할개념에 관심으로 가지고 사회윤리학을 하게 된 계기가, Dorothy Emmet(1965)에게 있다고 한다. 그녀는 사회학과 심리학과 인류학으로 대별되는, 20세기의 사회과학과 근대의 전문직업인들의 가치, 그리고 윤리학의 관계를 이 책에서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제과학들의 전제를 비판하는 객관적인 철학자의 시각에서 윤리학과 사회학을 논의하는 가운데, 역할개념의 분석은 인류학이나 사회학의 논의를 활용하면서, 윤리적 행위자의 역할을 덧입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Downie(1971)의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역할 개념부터 살펴보겠다.

### III. 사회윤리학의 역할 개념

#### 1. 사회윤리학과 역할

사회윤리학을 먼저 규정하고자 한다.<sup>12)</sup> 서양의 전통에서 윤리학은 도덕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의미하기도

8) Applbaum AI. Ethics for Adversaries : The Morality of Roles in Public and Professional Life. New Jersey : Princeton, 1999 : 75 ; King MD. Moral violence : Levinas and the limits of role morality. Doctoral Thesis of Dept. of Religious Studies, Indiana University, 2006 : 134. 에서 재인용. King은 자신의 논문에서 'detachment'를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글에서는 일관적으로 비판적 거리두기(critical distance)를 뜻하는 것으로 한다.

9) Welch D. Just another day at the office : the ordinariness of professional ethics. Professional Ethic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993 : 2(3-4) : 3-14.

10) 물론 시대와 의료기술의 발달과 문화를 초월한, 고유의 의사의 역할은 없다.

11) Downie RS, Charlton B. The Making of a Doctor : Medical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Downie는 직업을 세 가지 관점(개념), 즉, 역할-직업(role-job), 기술-직업(skill-job), 목표-직업(aim-job)으로 구분하고 의사-됨은 하나의 개념만으로 정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역할도덕은 직업 중에서 전문직의 공통요소를,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역할-직업으로 규정한 데서 출발한다. 의사란 무엇인가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12) Downie RS. Roles and Values : An Introduction to Social Ethics. London : Methuen & Co. Ltd., 1971 : 1장.

한다. 한편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이라고도 한다. 사회윤리학은 사회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라고 하겠다. 이 정의에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도덕이 결국은 사회도덕일 터인데, 그렇다면 사회윤리학이 일반도덕철학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도덕이 모두 사회도덕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적어도 도덕에는 사회도덕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래서 사회도덕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격적(personal) 측면, 자기-준거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윤리학이 인격적인 면대면 관계에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면대면 관계(face-to-face relationship)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윤리학의 담론이 필연적으로 몰인격적인(impersonal)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sup>13)</sup> 물론, 제도 개념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사회윤리학이 몰인격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여전히 다른 면에서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윤리학을 정의할 때 사회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사회도덕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과라고 하면 거의 오해가 없으리라 본다.<sup>14)</sup>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윤리학은 페르소나(persona)로서,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의 행위와 단순히 하나의 개인(person simpliciter)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는 행위 사이의 긴장의 결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게 된다.<sup>15)</sup>

## 2. 역할 개념의 분석<sup>16)</sup>

역할 개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역할이 통제하는

행위(role-governed action)와 그렇지 않은 행위(non-role-governed action) 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사회도덕의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역할이라는 개념에는 우선, 넓은 뜻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소유한 사람들 집단을 이룸 붙이는 방식이다. 둘째, 그런데 사회과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의미는, 극중 역할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King(2006)은 페르소나의 메타포가 이것으로 굳어진 데에는, 키케로를 몽테뉴가 에세이에서 인용한 것으로부터 기원한다면, 메타포 자체를 도덕으로 와전시킨 책임을 몽테뉴에게 지우고 있다.<sup>17)</sup> 배우가 무슨 역할을 연기할 것인지 말해주는 가면을 보면서 관중은 그 배우가 이리저러한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된다는 데에서 유래한 뜻의 역할을 말한다. 극적 역할과 유비로, 사회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X 역할을 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을 X로 본다는 점과, 타인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자신을 대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의 행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그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서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실존주의철학자들이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척하면서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즉, 기능 뒤로 숨어서 안일하게 안전을 꾀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중요한 윤리적 함축도 도출할 수 있다. 적어도 자신을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사적인 것을 뒤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달리 보면, 자신으로부터 역할을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

13) 몰인격성 (impersonality) 개념에 대해서는 IV.2에서 정리한다.

14) 국내에서도 사회윤리학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의무로 환원될 없는 분야로 규정하기도 한다. 물론, 더 넓은 의미로 사회문제에 대한 윤리적 분석을 뜻하기도 한다.

15) King MD. Moral violence : Levinas and the limits of role morality. Doctoral Thesis of Dept. of Religious Studies. Indiana University, 2006. 페르소나(persona)에 대해서는 역할개념의 분석에서 다룰 것인데, 페르소나 개념의 계보학적인 고찰로 가장 광범위한 것은 필자가 보건대 바로 King의 이 논문이다.

16) Downie. 앞의 글. 1971 : 6장.

17) King은 논문의 아이디어를 Applbaum(1999)에서 얻었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초연(detachment)에 대한 해석에서 Applbaum을 비판한다.

과 떨어뜨려 보는 관점 자체는 윤리적인 관점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미지 투영하기(image projection)' 도 페르소나, 즉 가면의 극적 메타포와 같은 뜻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행위를 채택해서 그런 스타일로 동일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이다. 대다수 직업이나 사회계층에서 이런 의미의 역할-하기(role-playing)는 통상적이다. 그 표지는 대략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역할-하기나 이미지 투영 외에 다른 요인도 연관이 되어있겠지만, 역할-하기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sup>18)</sup>

### 3. 역할-하기에 대한 평가

사회적 삶에서 이 역할-하기에 대해서 우선,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세기 도덕주의자들의 학파로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관습과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매순간 자기결단을 할 것을 주장하면서 맹렬히 비난하였다. 역할-하기는 일종의 불성실(insincerity)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회피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역할도덕에 대해, 자신의 의사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체계 속의 역할이 만들어낸 의사결정으로 전가하는 것을 비난한다. 바로 이것이 페르소나의 메타포가 근대에 와전되었다고 말하는 King의 논지와 직결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요지는 자신을 역할 속의 존재로만 보고 주어진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나쁜 신념(bad-faith)'<sup>19)</sup>이라고 하면서, 타인들에게 - 고객들에게 - 자신들은 그 역할담당자일 뿐, 그 이상이 아니라고 설득하려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것이 나쁜 신념인 이유는, 자신을 역할로 던져 넣고 원래의 자신을 잊는다는 식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들을 위한

존재(being-for-others)'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체 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것만 하는 척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표현이다.<sup>20)</sup> 그러나, 여전히 도덕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여지를 잘 짚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극적 메타포를 놓고 고찰을 했지만, 몽테뉴와는 상반된 도덕적 함축을 말하고 있는 점이다. 몽테뉴는 역할과 자기를 구분하는 게 가능해짐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역할에 종속시키는 - 비꼬아 말한다면 '떠넘기는' -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몽테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도덕론을 덧붙이고 즉, 결국 비판적 의사결정에서 역할이야말로 도덕적 책임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유일하게 합당한 접근이라고 하고 있고, 바로 이에 착안해서 Applbaum과 King이 비판하고 있다.<sup>21)</sup>

직업적 역할수행의 수월성, 혹은 이상을 끌어들이서 역할-하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수련을 받는 중에, 혹은 면허를 받고 나서 도제식으로 다른 선배의사들로부터 배울 때, 혹은 비판적으로 교수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가능한 생각이다. 의사란 모름지기 '저 분처럼 행동하여야 한다'거나, 혹은 반면교사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면서 말이다. 또는, 이 분으로부터 이런 점을, 저 분에게서는 저런 점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소위 '역할 모델' 개념이 이것이다.

또, 여기서 활용할, 사회윤리학적 개념이 있다.<sup>22)</sup> 드라마의 기원과 완전히 단절된 뜻은 아니지만, 드라마와의 유비보다 생물학적인 유비가 우세한 개념이 있는데, 기능적인 설명이 그것이다. 과학철학자들이 말하는, 생물학의 기능적인 설명이라는 개념의 이면에는 세 가지

18) 이미지 투영에서 직업적 역할의 이상형을 그린다면, 역할하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의 역할하기에 대한 평가를 볼 것.

19) 불어 mauvaise foi의 영역.

20) Emmet, 앞의 책, 1965 : 171.

21) King, 앞의 글, 2006 : 137.

22) Downie, 앞의 글, 1971 : 자신의 개념을 'causal-functional'한 것이라고 말한다.

전체들이 있다 : 1) 전체적으로 보아, 생물학 연구의 목적이 단일한 통일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2) 통일체계는 부분 혹은 상호의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3) 부분들, 상호의존적인 요소들은 그 질서 정연한 전체를 지속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인과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생물학의 기능적 설명을 사회학에 적용하려면, 세 가지 전제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 1) 우선 사회의 경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 한다. 생물체에서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회의 경계는 그리기 어렵지만, 일단 사회를, 법적/정치적 제도들의 영향이 끝나는 곳에서 사회가 끝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사회의 제반 제도들을 부분, 요소로 본다. 3) 제도들을 사회의 지속에 인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기술적인 관점과 규범적 관점이 그것이다. 사회학자의 시각과 법이론가의 시각으로 대별된다.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제도는 지속적인 상태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에 인과적으로 작동하는 그 무엇이다. 이 시점에서는 인과적으로 제도를 보면서도, 명목상의 목적(ostensible purpose)에 의해서 그것의 존재를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제도가 표방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하는 역할, 영향, 결과를 염두에 둔다. 법이론가의 관점은 어떠한가? 여기서 제도는 기술 가능한 목적들을 가진, 권리와 의무의 체계로 본다. 사회체계 내에서 어떤 일정한 영향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도의 작동과 관련하여 규범적인 개념 혹은 규칙에 대한 일정한 준거점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 사회학에서 - 역할은 '사실에 대한(de facto)' 개념이다. 여기서 역할은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기대행동의 패턴이다. 후자의 경우 - 사회윤리학에서 - 역할은 '권리에 대한(de jure)' 개념이다. 여기

서 역할은 권리와 의무의 묶음이다. 전자의 의미에서, 한 개인은 사실상 언제나 '어떤 역할을 가진다(having a role)'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의미에서는 '역할 속에 있다(being in a role)'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후자의 의미에서는 역할을 수용하거나 거부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사회윤리학에서 필요한 역할 개념을 정리하였다. 모종의 사회적 기능을 하는 권리와 의무의 묶음으로서 역할 개념이다. 우선 사회는 고도로 복잡한 제도들의 집합으로 본다. 그리고 각 제도는 권리와 의무의 묶음이다. 역할은 다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유래한 권리와 의무이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수표를 폐기하는 행위는 은행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역할, 규범적 역할 개념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회윤리학에서 기본적인 역할 개념은 바로 이런 의미의 역할 개념이다.

#### 4. 역할과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격(person)

앞서 본 사회윤리학적인 역할 개념은 전문직 역할의 도덕적 이해에 곧바로 도움이 된다. 제도적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다. 이를 기초로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을 살펴볼 차례다. 이제, 사회체계 내의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과 규범적 의미에서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회윤리학의 핵심은 바로 사회도덕의 이 측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첫째로, 동일성 관계라고 보는 논변이 있다. 즉,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몇 가지 혹은 수많은 역할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논변에서 도덕 자체를, 서로 맞물리는 역할들의 커다란 체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도덕적 행위자가 됨(moral agency)'도 특정한 역할수행자로서 하는 행위의 문제라는 것이다. 개연성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1) 분명한 허점은, 이 논변으로는 어떤 역할을 수용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다양한 역할들이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상황이지만, 이 논변은 설명 못한다. (2) 다른 허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할들로부터 초연해져서(detached), 그 역할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 웃을 수가 있다. 이것의 시사점은, 도덕이 결코 역할이나 역할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로,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교사로서의 역할 이외의 별도의 역할 말이다. 첫째 논변이 도덕적 행위자를 역할의 집합으로 환원시킨 데 반해, 이 논변은 도덕적 행위자를 역할 중의 하나로 묘사한다. 이 두 논변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둘째 논변에 대한 반론이 세 가지 있다 : (1) 역할에 대한 넓은 개념을 받아들이다라도 여전히 그 역할을 규정할 속성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인 역할과 동일성관계라고 규정할 권리와 의무란 대체 무엇인가? 막연한 문제다. 그렇다고 너무 좁게 잡으면, 분명히 도덕적인 결정이나 판단이라고 할 것을 배제 시키게 되고, 너무 넓게 보면 아예 역할이라고 별도의 개념을 만들 필요조차 없어져 버리지 않을 것인지 논란이 생긴다. (2) 둘째 논변을 수용하면 첫째 논변의 요지가 무의미해진다. 즉,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이 X와 Y로서 행위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는 말이 될 것이다.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역할 - 교사로서의 역할과 도덕적 행위자의 역할 - 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개념적으로 비경제적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역할과 도덕적 역할이 제시하는 요구가 상충한다고 해보자. 도덕적 역할이 항상 우선하는가? 만일 우선한다

면, 구체적 역할들과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또 만일, 우선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그것들이 도덕적 요구라고 할 때 일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상황에서는 또 다른 초도덕적 역할(super-moral role)로 한발 물러나야 하는가? 이 노선을 취하면 퇴행의 길에 서게 된다. (3) 도덕적 행위자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구체적 역할이라면, 그것도 선택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도덕은 거부하기를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행위자가 되지 않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장된 도덕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도덕을 거부한다는 말은, 단지 주어진 도덕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전제하는 도덕적 행위자란 인격(person)이다.<sup>23)</sup> 여기서 인격(person)이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해서, 도덕적 행위자 개념에는 환원 불가능한 인격(person)의 요소가 남는다. Downie는 이를 두고 사소한 정의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는 인격적인(personal) 측면의 유지나 역할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 정의가 중요하다.

인격(person) 자체가 하나의 역할-개념이지 않은가라는 반문도 가능하기는 하다. 인격(person)이라는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자. 개념의 계보를 다루는 사가들은 인격(person)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라틴어 persona가 확대 해석되어 드라마의 극중 역할 혹은 dramatis persona를 뜻하게 되고, 급기야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페르소나(persona)가 드디어 로마법에서는 권리의 주체를 상징하게 된다. 용어의 기원으로 보아, 인격(person)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도적인 개념이라는

23) 자연적인 인간개념으로서의 개개인을 의미하는 individual human being과 구별하여, 도덕판단의 주체로서, 즉 도덕적 인격이라는 뜻으로 인격(person)을 말한다. 윤리학과 관련한 형이상학이나 행위철학과 관련한 심리철학에서 personal identity나 personhood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분야이다. 특히, 의사-환자 관련해서 인격(person)의 개념을 다룬 책으로, Loewy RS. Integrity and Personhood :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이 있고,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를 위한 인격(person) 개념을 다룬 논문을 엮은, Goodman MF. What is a Person : Humana Pr. Inc., 1988.이 있다.

것이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인격(person)의 개념은 보다 깊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취한다. 신의 도시의 시민으로서 사람이라는 개념이, 궁극적인 형이상학적인 가치와, 권리와 의무의 담지자로서의 인격(person)의 사회적 개념과 합해지므로, 인격(person) 자체를 역할-개념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결국, 자연의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론은, 스토아철학을 받아들인 키케로에서도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Downie의 설명대로 인격(person)은 단순히 또 하나의 역할을 지칭한다고 할 수 없다. 인격(person) 자체가 역할-개념이라면 적어도 다른 역할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범주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 개인을, X, Y, Z, 그리고 인격(person)이라고 한다면 - 즉, 인격(person)을 다른 역할들 중의 하나로 보면 - 인격(person) 개념은 왜곡된 것이고 역할 개념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에서 흔히 무시되어버리곤 하는 사회적 또는 몰인격적(impersonal)인 측면을 강조해서, '무엇 무엇으로서 해야 하는 것(what-you-have-got-to-do-as-a-such-and-such)'을 개념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person) 개념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도덕의 몰인격적 측면과 대조시킬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역할로 환원되지 않는 인격성(personality)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실존주의적 사고의 핵심교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는 사람이 그저 웨이터이거나 군인이거나 할 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비난한다. 그러한 비난은, 웨이터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그 사람이 웨이터로서 하는 행

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옳다. 그런데 사르트르의 예에 등장하는 웨이터는, 그가 자신이 웨이터인 인격(person)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웨이터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난받는다. 게다가, 제삼자 입장에서도 웨이터를 웨이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것은 그를 인격(person)으로서 그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적 행위자들은 언제나 뭔가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때로는 단순히 인격(person)으로 행위하고 또 때로는 일정한 역할이나 역능에 속한 인격(person)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역할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행위의 도덕성은 결코 해당 역할의 권리와 의무로 모두 환원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자신의 역할로 전가할 수 없다. 권리와 의무로 분석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애초에 그 주어진 역할의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것은 인격(person)으로서의 그 사람이다. 따라서 역할-수용이라는 것의 도덕성은 수용된 그 역할의 도덕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역할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 인격(person)이다. 둘째로, 인격(person)은 스스로 택한 역할 속에서 역할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자질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점원이 깍듯하고 상냥하게 서비스 하면 우리는 그를 칭찬할 수 있다. 그런데 깍듯하다거나 상냥한 것은 자신이 택한 역할을 그 인격(person)이 한 것에 대한 칭찬의 말이다 : 그 말들이 그 역할 자체의 개념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인격(person)이 얼마나 자신의 역할 수행의 도덕적인 특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되는 역할의 종류에 분명히 의존한다. 형식화된 정도가 역할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역할에 따라 인격적인 도덕적 상상력과 감수성의 범위의 여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24) King. 앞의 글 : 몽테뉴와 키케로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 IV. 의사의 역할도덕과 '초연한 관심'

### 1. '초연하기'의 몰인격성과 '고통을 함께 하려는 관심'

이상의 분석을 통해 역할개념 중의 몰인격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의 구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할도덕이 주로 지시하는 것을 바로 이 몰인격적 역할개념이다. 그런데 역할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보다 인격적인 부분이 하나의 규정으로 형식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서 두드러진다. 인격적인 부분까지 몰인격적 형식의 윤리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Downie와 Emmet 사이에 이견이 없다.<sup>25)</sup> 역할 속에서 행위자는 특정한 관계에 놓인 특정한 인격(person)이 되어서, 이 때 자신의 순수한 인격적 특질로부터 초연해지는데(detached) 것이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정 관계속에서의 행동을 위한 지시로서 구조화된 규칙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겉으로 드러난, 그리고 가장 구조화된 형태가 전문직 윤리규정이다. 전문직 윤리규정의 행동지침은 전문직업인과 그의 고객 사이에 신뢰(confidence)를 확립해서 쌍방이 이익을 공유하는 기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감정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의 기능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합리적 정당화가 주어지는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신뢰 관계는 인격적인 친밀함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다. 인격적 친밀함과 역할의 인격적 측면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Downie가 말하는 것도 몰인격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을 상황에 따라 잘 조합하는 것이야말로 숙련된 관계맺음이라는 것이다. '초연한 관심'으로 요약된 콜롬비아대학 의대의 교육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감정적 중립성(affective neutrality)을, 보조적으로 감정(affectivity)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탈콧 파슨스에 따르면, 전문직업인은 감정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sup>27)</sup> 의사가 환자에게 인격적으로 호감이나 혐오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감정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것은 정신 분석가들에게서 중요한 윤리적 제한이다. Downie는 이것을 의사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너무 인격성을 드러내지도 말고 너무 몰인격성으로 치우치지도 말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서, 경험이 많은 해당 전문직의 선배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체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몰인격성이라는 말이 사실상 네 가지 정도의 다른 태도를 의미한다.<sup>28)</sup>

첫째,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거기서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면서, 전혀 상대를 격려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뜻으로 초연하여야 하긴 하지만, 의사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벽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며, 열리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표현을 북돋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공식적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직종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인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는, 증거를 청취하는 판사의 태도나 신체 특정 부위를 검진하는 의사의 태도인데, 이 역시 초연하다(detached)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분명한 의미는 무사(無私, disinterested)하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무사한 것과 무관심한 것은 다르다. 네 번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심각한 이상이 있는 환자를 보는 정신과의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미의 사태를 치우침 없이 판단하려는 공평무

25) Emmet, 앞의 책 : 158.

26) Emmet, 앞의 책 : 160.

27) T Parsons, EA Shi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1951 : 77, Emmet에서 재인용.

28) Downie, 앞의 책 : 134-138.

사람과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의 냉정하게 반응하는 자세와도 유사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반응하는 자세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하는 두 번째 태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것과도 같지는 않다. 적어도 네 번째 태도는, 능력껏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사람의 태도이다. 환자는 문제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온다. 환자의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의사의 능력과 기술의 문제가 되어있다. 정신과의사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한 도우려고 할 것이며, 환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태도이상에 의한 행동을 의사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받아들인다. 거리를 두되, 이 행동들까지도 진단의 자료로 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으로 다루면서 그 대상이 보이는 반응에서 인격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효율적으로 다루려는 것이다. 대상에서 관찰되거나 그에게서 입수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서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가 보이는 반응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환자에게 보이는 이런 태도는 역할 속에서 정당하다. 파슨스의 감정적 중립성은 이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태도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초연한 관심'은 초연(detachment)의 몰인격성(impersonality)과, 이에 더해서 의사가 만나는 고객의 특성상 의사가 가져야 하는 인격적(personal) 태도로서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관심(compassionate concern)'<sup>29)</sup>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메타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행위 자중립적인 형식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몰인격성과 인격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보여야 한다는

Downie의 설명은 의사뿐 아니라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직업에 통용한 것인데, 언뜻 보아서는 모순되는 규범들인데 대상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실 환자입장에서는 의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환자는 의사가 너무 초연(detached) 것 같다고 하다면서 이상해하고, 어떤 환자는 의사가 의사 역할만 잘하면 될 것이지, 너무 친밀하게(attachd) 대하는 것 같지 않냐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sup>30)</sup> 환자의 기질에 따라 의사가 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연구들이 이 대목에서 의미가 있다. 환자의 기질이 분석적인 경우에는 의사의 인간적인 태도가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반면, 환자가 정서적인 경우, 의사가 분석적이고 초연할 경우, 지나치게 비인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몰인격성과 인격성은 도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로서 역할의 효율적 수행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 2. 몰인격성(persona, affective neutrality, impersonality of role)의 윤리적 중요성

그런데, 이 몰인격성은 윤리적으로도 중요하다. 페르소나(persona)는 역할의 몰인격적 요소로서, 자신의 고유한 이름으로부터의 거리두기(초연하기, detachment)이다. 그래서 역할관계는 공통의 이름에 의해 불리는 하나의 추상이다.<sup>31)</sup> 그것은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것은 상황과 일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자

29) '환자가 겪고 있을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관심'인데, 최근에 대두되는 의료인문학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 점에서, 즉, 일인칭관점에서 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전문가를 키우려는 취지이다. 의과학이든 보건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이든, 과학적 시각은 임상적 '초연하기'와 다르지 않은 삼인칭관점이다.

30) Emmet, 앞의 책 : 160.

31) Emmet, 앞의 책 : 170.

들이 비판한 역할도덕은, 역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능 뒤에 숨어서 안전과 의미를 찾으려는 삶의 방식이다. 역할을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자체가 나쁜 신념(bad-faith)은 아니다. 물론 역할과 자신을 거의 동일시한 다음 역할에 자신의 가슴과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역할을 진지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 베르그송은 페르소나(persona)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인격(person)은 내적인 초연(detachment)과 유머감각(sense of humor)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웃음이야말로, 기계의 부품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sup>32)</sup> 베르그송은 웃음을 통해 생명과 기계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였다.<sup>33)</sup> 생명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반복할 수 없는데, 스스로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은 기계처럼 행동하며 웃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경직된 방식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기계주의, 자동주의, 생명 없는 운동을 모방하는 인간사의 양상이라고 하면서, 희극은 즉시 고치고 지나가야 하는 인격적, 집단적 결점을 표현하는 것이고 웃음이야말로 바로 즉시 바로잡음인 것이다.<sup>34)</sup> 놀랍게도 Downie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교정으로서의 웃음의 실례로 걸맞는 예를 들고 있다. 그는 교사의 예를 들면서, 재미나게 장난치는 아이를 교사로서 야단치기는 하면서도, 혼자 돌아서서 그걸 야단치는 자신이 우습다는 생각을 한다.<sup>35)</sup> 베르그송의 말대로, 이 사례에서 교사는 기계처럼 역할행동을 반복하는 자신을 그 웃음이 교정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희극의 관계에 대한 논의 중에 웃음을 설명하는 베르그송의 논의는 너무나 흥미롭지만, 여기서는 역할 자체를 자신과 떼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베르그송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정리해두겠다. Emmet는 몰인격성의 윤리적 중요성은 사람을 역할들의 조립품으로 보는 데 대한 반대 증거로서 드러난다고 한다. 그렇다. 실존주의자들이 한심하게 보았던 역할의 반복수행자도 실은 스스로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결과적으로 역할 수행이나 기능의 수행 중에 개인의 선택이나 인격적 스타일을 완전히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페르소나(persona)와 인격(person)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면, 갈등이야말로 인격(person)이 페르소나(persona)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역할에서 몰인격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잘 조화시키면서 수행하는 기술은, Downie의 설명에 의하면 그 방면의 경험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역할을 수행할 때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하게 되어있고, 역할과 역할을 하는 자신을 초연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의 특수한 역할로부터도 분리되지만 역할들의 묶음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이다. 시간과 주의집중을 놓고 경험하는 역할들 속에서 역할들이 지시하는 책임들이 서로 같등하는 일은 익숙하면서도 자주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개인은 바로 이렇게 같등하는 상황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해 정해야 하고 타협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로서 사회나 시대마다 역할에 요구하는 기대가 다르다. 의사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역할에 부여하는 사회적 기대가 그 자체로 도덕적인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sup>36)</sup> 그러나, 여전히, 서로 간의 기대가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32) Bergson, *Le Rire*, Emmet. 앞의 책 : 172. 에서 재인용.

33) L. 콜라코프스키, 고승규 옮김. *지성의 샘*, 1994 : 106-108.

34) Bergson, *Le Rire*. 앞의 책 : 66-67 ; 고승규. 앞의 책에서 재인용.

35) Downie. 앞의 책 : 129.

36) Murray TH. *Divided Loyalties for Physicians : Social Context and Moral Problems*. *Soc Sci Med* 1986 ; 23(8) : 827-832. Loewy 에서 재인용.

## V. 의사의 역할도덕과 선행의 도덕적 의무

그렇다면 결국 사회윤리적으로 의사의 역할과 역할도덕을 검토할 때 사회적 기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Veatch는 전문가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알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사실과 대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며, 전문적 역할들 속에 고유한 덕들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sup>37)</sup> 물론,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의사들이 헌신이나 인테그리티, 좋은 인격에 대한 헌신이 없는 신뢰하지 못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기 이익에 봉사하고 자신의 환자보다 다른 요구에 의해 갈등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도 않는다. 신뢰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한다. 환자에 대한 헌신, 가치중립적인 사실을 제시할 수 없다는 고백, 전문직이 작동하는 덕들이나 역할개념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정이 그것이다.

의사들에게 의무 이상의 것(supererogation)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의사들이 이타주의자일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sup>38)</sup> 초의무는 의무에 의해서 요구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의무에 의해서 측정할 수는 있다. 말하자면, 의무가 있는 행위를 더 많이 하였을 때 초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의무 이외의 것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Downie는 이렇게 규정하면서 거의 모든 의료윤리 체계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제를 비판하려고 한다. 그 전제란 무엇인가? 의사들은 적어도, 의무 이상의 것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

을 한다(benificent)'는 것은 널리 알려진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거나 사소한 의미에서만 참이라고 본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환자의 최선의 의학적 이 (medical interests)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일반도덕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도덕적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그저 직무 내용(job description)이다. 우리가 이것을 선행이라는 도덕적 의무규정이라고 보려면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활동이 모종의 좋음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도덕적 선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환자치료 역할에 적용하면, 그것은 환자의 최선의 의학적 이익이다. 그 목표가 의사를 곧장 성인이나 순교자의 대열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살려고 하는 일일 뿐이다.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도덕적인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가 의사로서 의사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도덕적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의 역할도덕이 제시하는 의사의 기본적 도덕은 환자가 가지는 최선의 의학적 이익에 맞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의 최선의 의학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나갈 것인지는 오롯이 의사 개인과 환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의 몫이다.

## VI. 결론

'초연한 관심(detached concern)'은 의사의 역할을 거의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역할도덕과 일반도덕에 적합한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리에서 의사들의 '임상적인 거리두기(clinical detachment)'를 비판하는 주장이 있었다. 이 거리두기가 공식적인 대응을 뜻한다

37) Veatch RM. Is trust of professionals a coherent concept? Ethics, Trust, and the Professions : Philosophical and Cultural Aspects, Pellegrino ED, ed. Washington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1.

38) Downie RS. Supererogation and altruism : a comment. Journal of Medical Ethics 2002 ; 28 : 75-76.

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객관적 입장이 되어 환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장조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필요한 역할의 의무이다. 그것이 초연(detachment)이다. 그러나, 의사의 역할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역할이 지시하는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대한 것이다. 의사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의사의 고객인 환자의 특성상, '고통을 함께하려는 관심(compassionate concern)'도 역할의 일부여야 한다. 초연하기가 의무로서의 역할 그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의 과학적 자세라면, 고통을 함께 하려는 관심을 환자와 동일한 인간 아무개로서의 도덕적인 자질(quality)을 드러내라는 요청이다. 경우에 따라 인격적인 자질을 드러내는 것이 공식적인 역할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알맞다면, 전문직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격적인 부분으로서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의 제대로된 수행의 관점에서 역할도덕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직에서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Bassford (1982)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적절하다 : 하나는 보편적인 도덕적 고려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역할-특유'의 문제로, 역할에 고유한 규범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전문직 윤리에서 이론적으로 주요한 것은 '역할-특유'의 규범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역할-특유'라는 것의 범위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의무라는 틀에서 보면 소실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행위의 정당화 또는 책임 문제는 양쪽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과연 어떻게 몰인격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을 조화시키는가는 전문가 자신의 몫이다. 의료윤리교육의 방법과 방향은 이 점의 시사점에서부터 고민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 글에서 다룬 의사의 역할은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역할로서 의사의 기본적 역할이었다.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관계는 일반대중과의 관계와, 의료 조직 내에서 동료의사들과의 관계가 남아있다. 따

라서,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전문직 역할도덕과 공통도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이 논지에 따라 파악해볼 수 있다 : 역할의 몰인격적 부분이 역할도덕인데, 초연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의사역할의 몰인격적 부분(역할도덕)과 인격적 부분(일반도덕)을 종합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의사역할의 수행상, 필요한 두 부분을 아우르는 행위자 중립적인 규범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선결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초연하기와 관심갖기의 정도와 방법이다. 콜럼비아 의대에서 배운다고 한 '초연한 관심'은 경험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임상에서 교수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환자가 이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전문직 윤리규정을 들면서 의사로서의 모든 행위와 태도가 정당화된다고 해서 의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윤리규정은 역할의 몰인격적 부분의 구조화된 것이기에, 그에 더해 인격적인 부분으로서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관심이 요구된다. 결국 전문직의 역할수행은 사회일반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들도 미래환자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정하여야 할 필연성에 있다는 것이 의철학자 사무엘 고르비츠의 주장이다. 의사라는 전문직의 존재이유가 의사들 자신을 포함해서 사회일반의 구성원 모두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과학적 임상적 초연보다 우선하는 것을, 역할의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논점이 유효하다. ■

**색인어** : 전문직 역할, 역할도덕, 일반도덕, 전문직 윤리, 초연, 고통을 함께 하려는 관심

## Detached Concern and the Professional Ethics of Doctors

KANG Myoung-Sheen\*

This article attempts to characterize the appropriate role of doctors in relation to their patients. A guiding question is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doctor's role and the doctor's professional ethics?" Several authors have described the possible conflicts between role morality and common morality and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former. This article defends the idea that the appropriate attitude of doctors toward their patients is detached concern, which combines detachment and compassionate care, and represents the impersonal and personal aspects of a doctor's role. The question of whether detached concern could ever work as an ethical prescription is also explored. The answer provided is that detached concern should function, not as a direct ethical prescription, but as an overarching attitudinal norm for medical professionals.

● **Keywords:** Professional role, Role morality, Common morality, Professional ethics, Detachment, Compassionate concern

---

\* BK 21 Project for Yonsei Dent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